

與 “통합당 복귀 안하면 이번주 결단”

민주당 국회 원내대책회의
3차 추경안 처리 시급

“18개 상임위 독식 불가피”

의원들 강경 목소리 커져

한시적 원 구성안도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23일 21대 국회 원 구성에 나서지 않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날렸다. 민주당은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통합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망부석도 아니고 더는 얼마만큼 더 기다려야 하느냐”면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6월 국회에서 추경을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돌입하겠다.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책임여당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복귀 의지가 있다면 오늘 중으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해달라”며 “국가 비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또 “3차 추경이 통과돼야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중견기업의 융자보증자금 40조 원을 긴급 지원할 수 있다”면서 “금융지원에 적기에 집행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것이 생명이다. 파산한 뒤에 지원해줬자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3차 추경안이 지체될수록 국민의 고통만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1분 1초에 우리 경제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통합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맞아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국민과 경기 위축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기업들에게 추경은 생명줄이고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다”면서 “6월 국회 처리, 7월 초 집행이 3차 추경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발목 잡는 통합당과 협치를 이유로 백척간두에 선 남북관계와 민생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이번 주까지 원 구성 협상에 불응한다면 18대도 불사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를 대비해 25~26일 국회 근처 비상대기를 요청했는데,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목·금요일에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아직까지는 야당을 향한 엄포라는 분석이 많지만, 이번 주로 시한을 못

박은 만큼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임하기 위한 수순 밟기 차원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1대7로 위원회를 맡는 것이 국민 뜻에 따르는 것”이라면서 “이번 주 안에 합리적인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고 나중에 통합당이 원하면 돌려주자는 한시적 원구성안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백해련 의원은 YTN 라디오 출연해 “하나의 안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태년·주호영, 강원도 사찰서 회동

원 구성 돌파구 마련 주목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강원도 한 사찰에서 회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김 원내대표가 주 원내대표가 있는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가 만남이 성사됐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 15일 민주당이 통합당의 불참에도 다른 군소정당과 함께 법제사법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이후 처음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로 사의를 표명하고 전국 사찰을 돌며 잠행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에는 원구성을 완료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박병석 의장, 국회 정상화 촉구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원구성 문제와 관련,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의장실을 방문해 “6월 임시 국회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하자 “3차 추경의 긴박성을 잘 안다”

면서 이같이 답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 비서관이 전했다.

앞서 박 의장은 이날 이춘희 세종시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국회가 국민의 부름에 호응해야 한다”면서 “어느 당의 입장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김승남, 지방세·조세특례제한 7년 연장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올해 말 일몰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지와 농기계류 취득세 감면, 어업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농어업법인과 협동조합의 세금 감면과 면제 등으로 농어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도 축사 용지, 어업용 토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과



세 특례 등으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올해 12월 31일 에 일몰되는 법안으로서, 농어민 보호를 위해 특례기간 연장

이 필수적이다.

김승남 의원은 “특례기간 연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농업인들에게 더욱 절실해졌다”며 “법안 통과로 농어업인들과 관련 산업 보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홍걸 “동교동 자택 상속은 어머니 유지”

김홍업과 유산 다툼…이희호 여사 유언장 공개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회의원은 23일 모친인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유산에 대해 “이 여사의 유지이며 서울 동교동 자택이 본인에게 상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통령 3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복형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32억원 상당의 서울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잔여 상금 8억원을 두고 법적 다툼 중이다.

김 의원의 법률 대리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은 이희호 여사의 친자로서, 이 여사가 남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지위가 있다”며 이 여사의 유언장

을 공개했다.

유언장에는 ▲노벨평화상금을 김대중 기념사업에 위해 사용하고 ▲동교동 자택을 김대중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소유권은 김 의원에게 귀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교동 자택을 매각할 경우 대금의 3분의 1을 김대중기념사업회(이사장 권노갑)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을 홍일 홍업 홍걸 3형제가 3분의 1씩 나누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변호사는 “유언장은 서거 3년 전 작성됐으나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면서도 “법적 효력을 떠나 여사의 유지가 담겼다고 판단해 김 의원은 그 유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분쟁 당사자인 김 이사장 측은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유언장이라는 게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애초 3형제가 재산 관련 합의사항을 담아 남긴 유언장(확인서)이 적법하며, 여기에는 동교동 사저 소유권을 ‘김 의원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 이사장과 가까운 한 관계자는 “기념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노벨평화상금을 헐어서 상속세 납부에 쓴 것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동교동 사저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1월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8월 전대 점검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오는 8월 치러질 전당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당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17개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전당대회에 대한 우려 때문에 랜선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는지, 중앙당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도당에서도 그런 방식을 좀 더 잘 보완을 해서 준비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소병철 “묻지마 폭행 영장 기각, 국민 공분”

법사위 업무보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강) 국회의원은 23일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최근 서울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사건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두 차례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국민들과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창에서도 발생한 유사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국민들은 보복범죄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에 떨며 아우성을치고 있는데, 법원만 귀를 닫고 있으니 사법개혁의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란한 법이

론이 아니라 법원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

는 신뢰를 주는 것”이라며 “여성이나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영장이나 재판의 판단기준을 모티터링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소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합회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1%~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2,491,400원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 저금리 저이자 융자하는 저리채환(당첨 부형) (당첨 부형)
- 저금리 저이자 융자하는 저리채환(당첨 부형) (당첨 부형)
- 저금리 저이자 융자하는 저리채환(당첨 부형) (당첨 부형)
- 저금리 저이자 융자하는 저리채환(당첨 부형) (당첨 부형)
- 저금리 저이자 융자하는 저리채환(당첨 부형) (당첨 부형)
- 저금리 저이자 융자하는 저리채환(당첨 부형) (당첨 부형)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 상 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조건	최대 1,000만원 이내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